

연세대학교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변형문제

오르비 논술팀 / Peroz Aramis

제시문 (가)



『주역』의 화택규(火澤睽) 괘는 태하리상(兌下離上)의 괘다. 상리괘(上離卦 ≡)는 불(火)이고 하태괘(下兌卦 ≡)는 연못(澤)이다. [...] 규(睽)는 노려볼 규. 등지다, 배반하다의 뜻. 곧 서로의 의견이 어긋나서 반목하다, 노려본다는 의미다. [...] 불은 위로 타오르고 물은 밑으로 흘러가니 이것은 서로의 의사가 합쳐지지 않고 반목해서 서로 배반하는 상태다. [...] 규괘를 한 개인으로 보고 해석하면 곧 그 마음이 순일(純一)하지 못해서 사욕과 도리(道理)가 갈등하므로 생각이 통일되지 못해 바른 길을 못 찾는 상태다. 이래서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 어렵다. 집단이나 한 국가로 보고 해석해도 내용은 같다. [...] 군자는 이 상(象)을 법도로 삼아, 귀결되는 바는 설사 같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선처해야 한다. [...] 사람이 행복을 구하는 뜻은 비록 같다 해도 그 행위는 모두 다르다. ‘같으면서 다름’(同而異)은 이런 의미다. [...] 이 우주와 인생에는 시간과 공간, 환경의 변화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곤 존재할 수 없다.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성(人性)도 비록 근원은 동일할지라도 말단에 이르러서는 서로 어긋남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규괘는 이런 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어긋남을 인식하면서 화협(和協)의 도리를 찾아야 한다. [...] 규의 상태는 고금왕래(古今往來)에, 인류사회에 면면히 계속되고 있다. 「단전」에는 [...] ‘다르면서 같음’(異而同)의 도리를 말했으며 「대상전」에는 ‘같으면서 다름’(同而異)을 말했으니, 이 도리를 터득하면 인간만사에 통용되어 큰 허물을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어긋남(睽)의 때의 쓰임이 위대하다”라 했다. [...]

「계사전」에서는 “나무를 굽혀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서 활과 화살을 이용함으로써 천하를 위협하니, 아마 이것은 규괘에서 취함이니라”고 언급하였다.

제시문 (나)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의 현상 가운데 몇 가지만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의 관심을 그런 현상들에 국한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들은 아이가 혼자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또는 어머니처럼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대신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난다. 이 세 가지 예들은 단 한 가지의 조건, 즉 아이가 좋아하고 갈망하는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로 축약할 수 있다. [...]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상상실의 문제 외에도 더 고찰할 것이 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지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욕구를 지체 없이 만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위협으로 느끼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상황은 욕구로 인해 긴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아무 해결도 할 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

자극이 심리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불쾌감을 유발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필경 태어날 때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고, 따라서 위험상황의 되풀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 해소되어야 할 자극이 축적되는 것, 이것이 위협의 진정한 본질이다. 이로부터 불안의 반응이 나타난다. 불안은, 출생 시 이 반응이 체내의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폐를 활성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또한 축적된 자극을 호흡기관과 발성기관으로 돌려 엄마를 부르게 되는 과정을 유도한다.

제시문 (다)

위대한 발견은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겨난다. 플람스테이드와 핼리의 실용적인 천문학 해석은 뉴턴으로 하여금 혜성의 움직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내게 했고, 그 후 하늘에 있는 모든 물체들 상호간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법칙을 주장하게 하였다. 혹성과 혜성들의 궤도가 공히 타원형인 이유는 이 법칙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뉴턴의 이 ‘중력론’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전적으로 순수과학적인 논증은 아니었다. 사뭇 신비롭게 들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인력’ 개념은 유럽 전역이 유달리 불안정했던 때인 17세기 후반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자주 나타났던 혜성에 대해 우주적 신비 등을 내세워 설명하려던 미신장이들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초판에서 뉴턴은 우주의 조화와 균형이 곧 깨어질 수도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그 예로 최근 하늘에 나타난 일련의 놀라운 현상들, 즉 혜성의 잦은 출현을 들었다. 그리고 핼리는 1697년에 영국 왕립학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에 혜성과 같은 크기의 물체가 충돌할 때”의 효과를 “다시 태초의 카오스 상태로 지구가 환원될 수도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1680~81년 혜성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다. 뉴턴도 여든 살이 넘었을 때 조카 존 킨듀잇에게 1680년에 태양을 스치듯 비껴간 혜성에 의해 지구가 거의 멸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 혜성이 중력에 의해 태양으로 끌려들어갔더라면 그 결과 지구는 엄청난 화염으로 멸망했으리라는 것이다. 핼리도 같은 생각이었다. [...]

핼리와 뉴턴은 둘 다 1680년에 왔던 혜성이 다시 나타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결국 “그 혜성의 여파”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었다(핼리의 계산에 의하면 그 혜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기간은 575년이었다). 킨듀잇은 뉴턴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언제 이 혜성이 태양으로 떨어질 지 알 수는 없네. 어쩌면 그 혜성이 대여섯 바퀴는 더 돌고 난 후일 수도 있지. 그게 언제이건, 혜성이 떨어진다면 태양의 열은 치솟아 지구는 다 타버리고, 생명체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의 ‘불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의 ‘불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불안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인간이 취하는 행동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 (가), (나)가 불안이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다)는 불안을 외부, 특히 사회적 요인에 의해 증폭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제시문 (가)와 (나)가 말하고자 하는 불안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는 서로 다르다.

(가)에서 불안은 규, 즉 반목 상태를 의미한다. (가)는 이를 상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공감을 통해 해결하자는 논지이다.

세상 만물은 그 뿌리가 동일하지만 이와 동시에 본래 서로 다른 개체이다. 이 다름[睚]으로부터 불안이 유발된다. 이를 화협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활과 화살의 근원이 모두 나무이며, 이를 알면 천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예시를 통해 (가)에서는 이 원리로 불안 해결이 너무나도 용이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나)에서 불안은 불만족을 의미하며, 이는 끊임없이 의지할 누군가를 찾는 과정에서 해소된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릴 때부터 일생 전반에 걸쳐 지속되며, 이럴 때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자극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다)에서는 불안을 그 내재성보다 외부 상황에 의해 증폭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다)는 (가), (나)에서처럼 이를 해소하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불안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진보에 초점을 둔다.

(다)에 의하면 불안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불안은 혼란스러운 사회 양상에 의해 발생하여 인간에게 공포를 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 위협은 인간을 절박하게 하여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낸다. 만일 불안이 없다면,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944자)